

# 추억 속 동요로 떠나는 시간여행

‘추동복 동요교실’ 내일 음악회  
‘섬 집 아기’ ‘고향땅’ 등 함께 불러  
동요 애호가 누구나 참여 가능



지난해 11월 화순의 ‘실크로드’ 카페에서 열린 ‘제1회 쌍얼롱 음악회’의 모습.

기성세대들이 어린 시절 불렀던 추억의 동요를 함께 부르는 기회가 마련된다. ‘추억의 동요와 함께 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추동복동요교실’(대표 김남삼)이 7번째 동요음악회가 바로 그것.

추동복 동요교실의 ‘쌍얼롱 음악회’가 23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풍암동 카페 ‘짜북 짜북’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이 날 음악회는 참가자들과 동요를 함께 부를 뿐 아니라 동요와 관련된 이야기, 추억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푸른 잔디’, ‘섬 집 아기’, ‘과꽃’, ‘고향땅’, ‘가을’, ‘나뭇잎 배’, ‘오빠생각’ 등을 함께 부를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비 1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커피와 간식이 제공된다.

‘추동복동요교실’은 동요작곡가인 김남삼(63)씨가 지난해 목포 연동초등학교 교장을 퇴직하고 9월에 결성했다.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에 ‘추동복 동요교실’을 생각했다. 이후 11월

첫 동요수업인 ‘쌍얼롱음악회’를 열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추동복은 50대 이상 고정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동요를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남삼 대표는 “쌍얼롱 동요음악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눈만 뜨면 불렀던 동요를 함께 부르며 마음의 고향을 찾아 지난날을 추억하고 동요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자 마련한 음악회다”며

“주위사람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추억의 동요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로 시간여행을 하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맑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654-2692, 010-4617-1909. /전문기자 ej6621@

## 광주·전남 문화재단들, 문화다양성사업 7년 연속 선정

광주문화재단과 전남 문화관광재단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기관 공모에서 7년 연속 선정돼 각각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무지개다리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의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주체들 간의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난민인식개선캠페인’.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도에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기념사업과 연계한 ‘고려인마을 방문의 날 행사’, ‘난민인식개선캠페인’, ‘문화다양성 영상 공모전’ 등을 운영했다.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정책포럼 개최, 문화다양성 증진단 운영 및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2017년 1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올해 무지개다리사업 주요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정책 네트워크 협의체인 ‘문화다양성 증진단’ 운영을 비롯해 ‘정책 개발’,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요 연구기관과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지개다리사업에 필요한 문화정책 개발, 문화자원 발굴 및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전남에서 문화다양성 길을 찾다’, ‘전남에서 문화다양성 길을 찾다II’ 등을 발간했다.

올해 주요사업은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다양성 거버넌스 재구조 및 강화, 문화다양성 교육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황현산 문화예술위원장 사직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현산(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예위 관계자는 “황 위원장이 예전에도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새로운 암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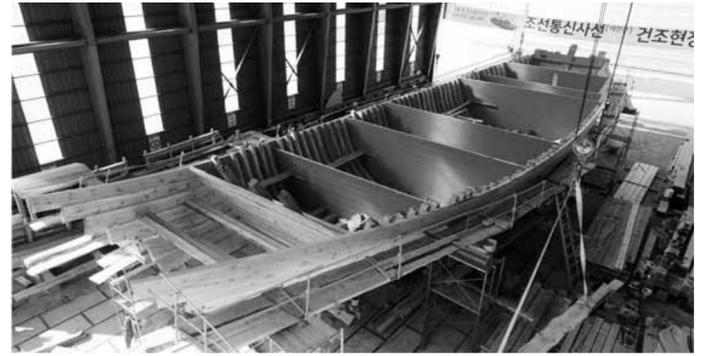
황 위원장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대, 강원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30여 년 간 교편을 잡았다.

황 위원장은 문학평론가로도 명성을 쌓았으며, 2007년 미당문학상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얼굴 없는 희망’, ‘아폴리네르-‘알코올’의 시 세계’, ‘말과 시간의 깊이’ 등이 있으며 팔방비평문학상, 대산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번역과 관련해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한국번역비평학회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황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2020년 11월까지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문예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최창주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부회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연합뉴스



복원 중인 조선통신사선 재현선. 현재 복원 공정률은 65%에 달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 200년 만에 복원되는 ‘조선통신사선’

### 오늘 영암 대불공단서 상량식

조선통신사는 개화기 이전까지 조선이 일본(에도 막부)에 파견한 대규모 사절단을 말한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됐다. 통신사 파견은 외교는 물론 일본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찾았던 1811년 이후, 200여 년만에 복원되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상량식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지난해 6월부터 제작중인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명에(대들보 역할)을 올리는 상량식을 22일 영암 대불공단에서 연다고 밝혔다.

상량식은 배 제작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배짓기 고사, 완성해서 물에 띄우는 진수식과 함께 선박 제작 과정의 3대 의식 중 하나다. 제작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남은 진수식까지의 안전 기원, 그리고 목수 등 제작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날 재현선의 상량식은 바다를 관광하는 사

해용왕께 올리는 불제(재용을 물리침)를 시작으로 상량문 낭독,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亞獻), 명에를 올리는 상량식으로 진행된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4월부터 발굴 조사한 조선시대 조운선(마도4호선) 등을 함께 참고해 원형을 설계한 후 지난해 6월 22일 배짓기 고사를 시작으로 선박 재현에 착수했다. 선박 관련 자료가 기록돼 있는 ‘계미수사록’, ‘증정교린지’, ‘현성유고’ 등 옛 문헌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제작을 위해 강원도 삼척과 흥천에서 자생한 금강송 900여 그루를 사용했으며 특히 명에는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벌채한 길이 20m, 직경 60cm의 금강송 15그루가 쓰였다.

오는 10월 진수 예정인 재현선의 복원 공정률은 65%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복원이 끝나면 승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와 지자체 해양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늘 뮤지컬 갈라 ‘김넷과 도시樂 콘서트’

문화공간 김넷과에서 ‘도시樂 콘서트’가 열린다.

사단법인 어썸오케스트라앤콰이어(이사장 여태남·임근도건 대표이사)는 22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넷과’ 문화공간 2층에서 ‘도시락 콘서트’를 연다.

‘도시락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한 주제를 기획,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에 공연을 개최한다.

뮤지컬 갈라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정은 생과 삶이다’이다.

김넷과를 운영하는 박헌택 영무예다음 대표이사의 인문학 강의를 시작으로 테너 김성진, 소프라노 윤하나, 바리톤 염중호가 무대를 꾸민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원스 어폰 어 드림(Once upon a dream)’,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별의 집’ 중 ‘그대도 살아주소’, 뮤지컬 ‘안중근’ 중 ‘영웅’,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중



소프라노 윤하나 바리톤 염중호

‘내일로 가는 계단’ 등 뮤지컬 대표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시락 콘서트’는 큰 공연장을 벗어나 공간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오는 3월 29일 ‘오페라 갈라’를 주제로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관람료 1만 원. 문의 010-2976-6409.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b>아모리이온</b></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b>아모리이온 롱바디</b></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b>아실리 바디슈트</b></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회 1등</p>	<p><b>비비드 아모르</b></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